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특별헌금
평화와 화해

전쟁 참전 용사가 이라크에서 치유와 파트너십을 위한 기회를 찾음 - 피츠버그 노회와 평화 및 세계 증인에 의해 지원

이라크 전쟁에서 병사로 봉사한 지 15 년 후 매튜 프리커 ^{Matthew Fricker} 목사는 이라크로 돌아가야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자신의 말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피츠버그의 존 맥밀런 장로교회 부목사인 프리커 ^{Fricker} 는 이라크를 여행한 이라크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8 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장로교 그룹으로서 회원들은 이라크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에 관심을 공유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라크에 남아있는 세 명의 작은 장로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2003 년 이래로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전쟁에서 탈출하기 위해 도망쳤으며, 그로 인한 황폐화와 ISIS 의 강박한 박해를 피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Fricker 는 이라크에서 경험한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가족, 전쟁, 재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통해 화해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화합에 대한 열정을 평화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로 부터 받은 것은 치유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피츠버그 노회는 평화와 세계 증인 헌금의 노회의 몫을 통해 프리커의 여행을 지원했습니다. 노회의 평화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Henk Bossers 목사는 Fricker 가 더 많은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들을 참여시키려는 꿈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에게 다가 가고 있으며 문자,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해 이라크 장로교회와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평화는 이러한 종류의 대화, 이러한 종류의 파트너십 및 이러한 종류의 방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장로교와 중간공의회는 미국장로교 전역에서 평화와 세계 증인 헌금의 몫을 사용하여 지역 및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또한 멀리 있는 곳으로 증언을 확장합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의 파트너 교회들과의 관계를 촉진하는 엘마리 파커 ^{Elmarie Parker} 가 이라크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위해 한 것처럼 미국장로교회 선교 동역자들은 종종 장로교인들을 이러한 기회로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청합니다. 헌금의 25%는 교회에 의해 유지되고, 25%는 중간공의회에 제공됩니다. 나머지 50%는 평화와 화해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교회에서 사용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몫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프리커 ^{Fricker} 목사가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우리의 세계 자매들과 형제들을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것입니다. 평화와 세계 증인 제물에 대해 관대하게 기부해 주십시오. 조금씩 더 할애하면 많은 것들이 합쳐집니다.

기도합시다 ~

오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화목 사역의 일부로 만드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평화를 이루도록 격려하여 주십시오. 아멘.